

고흥물, 국내 5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주)위메프와 손잡았다

고흥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 마케팅 추진 업무협약 이달 '고흥복숭아 프로모션' 첫 프로젝트 선보일 예정

고흥군 농수특산물 생산 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를 지원하는 군 지역 온라인쇼핑몰인 '고흥물'이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프(대표이사 김효종)와 손잡고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고흥군은 지난 5월 30일 (주)위메프와 고흥물-위메프 플랫폼을 연계한 '군 농수특산물 온라인판매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류화현 운영마케팅본부 본부장 등 관계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약속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군은 3.8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사계절 온화한 기후로 양질의 농수산물 생산되고 있지만, 소비자 확보와 판로 개척이 쉽지 않다"며, "위메프와 연계한 고흥물 홍보마케팅이 농수산물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고 고흥산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위메프의 창업부터 함께 해온 류화현 본부장은 "최근 성장세에 있는 고흥물과 상호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고흥 우

주항공축제와 연계한 고흥물 라이브방송, 고흥김 홍보를 위한 김밥 퍼포먼스 등 MZ세대를 공략한 도전적인 지자체의 노력을 보고 고흥군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고흥물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마케팅을 기대해주면 좋겠다"며 "좋은 매출 결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의 첫 프로젝트로, 고흥물과 위메프는 오는 6월에 '고흥복숭아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8월에는 출하 시기에 맞춰 고흥산인머스켓 관축전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온라인판매 전용 고흥물 PB상품(Private Brand: 독자브랜드)인 도시락 김도 위메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물이 운영 2주년을 앞두



고흥물-위메프 업무협약 체결식. 위메프 대표이사 김효종(왼쪽)과 고흥군 운영마케팅본부 본부장 류화현(오른쪽)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관내 소규모 농어민과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유통 촉진을 위해 앞으로 위메프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사와 협력해 고흥물의 매출 성장세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동재본부



보성군, 수국·편백나무가 아름다운 숲 윤제림 2대에 걸쳐 60년 가꾸어...오늘부터 유료화

보성군 겸백면 주월산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소룡의 숲 '윤제림'이 힐링의 공간으로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윤제림'은 거의 100만 평(337ha)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6월이면, 지난해보다 풍성한 수국 4만 분이 개화를 앞두고 있다.

또한, 윤제림은 색깔별 식재된 수국뿐만 아니라 붓꽃, 버드나무, 안개 나무 꽃들이 가득하다. 힐링 코스처럼 나지막한 산책길을 걷다 보면 포토존도 만날 수 있다.

치유의 숲 윤제림은 1969년 식재한 해송과 편백나무 6만 분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산림욕도 즐길 수 있다. 그동안 무료 개방했지만,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고려해 올해 6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윤제림은 그 규모만큼이나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주월산 정상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체

험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민간 정원 제12호로 지정된 성림원이 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임산물 따기 체험은 모노레일을 타며 숲을 느끼고 숲을 이해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윤제림은 숲속 야영장 야영테크(15개소), 숲속의 집(12동), 아치하우스(18동), 단독숙박시설(6동) 등을 갖춰 300명이 동시 투숙할 수 있는 산림 휴양 시설이기도 하다.

윤제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윤제림 홈페이지(yunjerim.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윤제림은 1964년부터 조림 사업을 시작했으며, 2대에 걸쳐 가꾸어 이어오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 산림 명문가로 지정되기도 했다.

보성=김택순기자

순천시, 자동차 아닌 사람 중심 '대·자·보' 도시 조성

오늘 대한민국 생태교통 전문가 초청, 토크쇼

순천시가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순천시는 1일 오후 국가정원 내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자·보 도시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대·자·보는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의 첫 글자를 따 경기 좋고 자연친화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로운 도시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생태교통 전문가를 초청해 '사람 중심의 대·자·보 생태교통정책'으로 전환을 주제로 한 포럼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크쇼로 구성된다. 진행 순서로 순천 청년들모임 구성된 퓨전 국악·성악 그룹의 공연도 예정됐다.

도시 교통 전문가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동차 도시에서 대·자·보 도시로"라는 주제로, '기적의 도시 메테

진'의 저자인 박용남 작가는 '당신의 차와 이혼하세요'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전문 사회자가 진행하는 대·자·보 토크쇼에는 정석 교수, 박용남 작가와 함께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노준기 위원이 참여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대·자·보 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포럼은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박람회장 내 입장은 당일 순천만국가정원 서문과 남문 현장 접수처에 등록하면 가능하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지역 관광 활성화 위한 '민·관 협업조직' 발족 17개 관광분야 단체·민간시설 참여...실무자 회의 개최

여수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조직'을 발족하고 남해안 거점 해양관광휴양도시 조성에 나섰다.

'민·관 협업조직'은 민과 관이 상시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별 관광자원 및 정책 연결을 위한 관광거버넌스다. 지역 관광단체 및 민간시설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30일에는 국동임시별관 회의실에서 '민·관 협업조직' 3개 기관·단체와 9개 민간관광·숙박시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여수시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관광정책을 공유하고 관광관련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양시, 일자리 한눈에 파악하는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광양시는 시가 운영하는 '희망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광양시 희망일자리센터 홈페이지는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의 지역별·직종별 채용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효과적인 일자리 정보 전달과 편의성 부족이 지적돼 왔다.

또한 광양시의 모든 공공, 민간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없고 단편적인 구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비 2억 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용역 사전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보이는 일자리' 홈페이지를 전격 구축한다.

광양=김현근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